

The Mæssage

(“The Message” by Eugene Peterson 의 허계영 번역 version)

말라기



출처가 따로 표기되지 않은 그림은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1 장

그런 가짜 예배, 이젠 정말 받고 싶지 않다고!

¹ [해설] 다음은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²⁻³ [하나님] 내가 말했지. “난 너희를 정말 사랑한단다.”

하지만 그 말에 너희 이렇게 대답하더구나.

(백성들) 헐~ 주님이 언제 우릴 사랑하셨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그래서 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지.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내가 에서에 비해 너 야곱을 얼마나 특별대우 했는지... 내가 너 야곱은 사랑했지만, 에서는 미워했잖니? 내가 그 ‘잘난’ 에서를 꼴찌로 만들고, 에돔 전국을 유령도시로 만들었잖니?”

⁴ 에돔(에서)는 이렇게 말했어.

(에돔) 우리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것도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 그 말에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이 말했단다.

“그래 어디 한번 해 보거라. 네가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자꾸나. 내가 널 쓰러뜨리면, 넌 다시 못 일어나! 사람들이 널 보며 ‘사악한 땅’이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족속’이라고 말할 거라고!”

⁵ “그래, 잘 보거라. 이제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했는지 알겠지? 너희는 더욱 간절히 원하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게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위대하시구나! 이스라엘 국경 너머에서도 막강하시구나!

* * *

⁶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직원이 사장님을 존경하는 건 당연한 거 아냐? 현대 말야..., 내가 너희 아버지라면서? 그런데 너희는 왜 날 공경하지 않는 거지? 내가 너희 주인이라며? 그런데 나에 대한 존경심은 어디다 팔아먹은 거냐고?”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이 따끔하게 꾸짖는다.

“너희 제사장들이 날 멸시하는구나!”

그런데도 너희는 이렇게 말하지.

(제사장들) 아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하나님] “너희가 대충, 아무렇게나, 모욕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

그 말에 너희는 이렇게 물었지.

(제사장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욕적’이라니요? 도대체 뭐가 모욕적이라는 거죠?

⁷⁻⁸ [하나님] 너희가 이렇게 말하잖니? 그게 바로 모욕적인 거야.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단?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거 대~충 하면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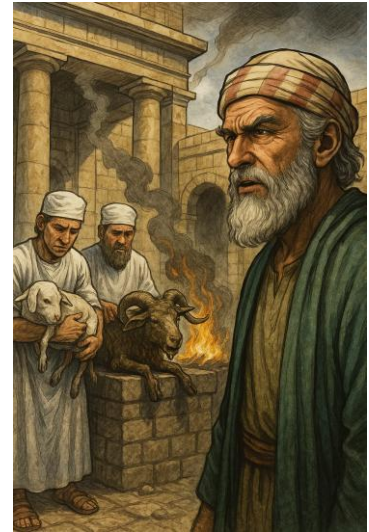
[하나님] 너희는 예배 때 하등에 쓸모없는 짐승들-눈 멀고, 병들고, 다리 저는-을 갖다 바치잖아. 무슨 쓰레기 처리하듯, 헌신짝 던지듯 나한테 가져오잖아? 그런데도 이게 모욕적이지 않다는 거야? 어디, 너희 국회의원이나 은행장한테 그런 거 선물해 보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말라기]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오.

⁹ [하나님] 너희는 무릎 꿇고 내게 기도하거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야. 너희 제사장들 때문에 백성들마저 다 망가졌구나. 너희가 이따위로 행동하면서, 설마...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길 바라는 게야?

[말라기]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오.

¹⁰ [하나님] 차라리 성전 문을 걸어 잠그지 그래? 그 따위 종교놀이 하려고 성전 드나드는 거, 당장 그만두라고! 마음 없는 예배, 형식만 남은 헛된 종교 짓거리에 내 마음이 정말 슬프구나.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단 말야! 그런 '가짜 예배', 이젠 정말 받고 싶지 않다고! (고마 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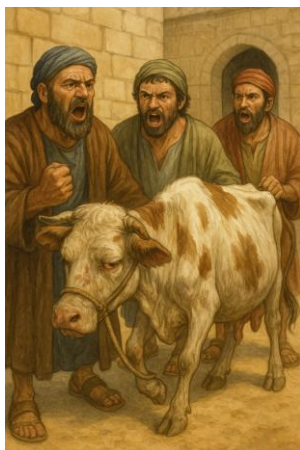


쓰다 버린 거, 망가진 거, 쓸모 없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다니!

¹¹ [하나님] 난 말이지, 온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있단다. '날 어떻게 예배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세상 도처에 깔려 있지. 그들은 말야, 나한테 극상품을 가져와 날 공경한단다. 그들은 어딜 가나 이렇게 말하지.

(진실된 예배자들) 위대하신 하나님! 천군천사의 하나님!

¹²⁻¹³ [하나님] 하지만 너희는? 그들 발뒤꿈치도 못 쫓아가. 날 공경하기는커녕 오히려 날 모욕하잖니?



(백성들)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래? 예배에 뭘 가져가든 그게 뭐 대수야? 예배시간... 정말 지루해 죽겠어.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

[하나님] 너희는 그렇게 콧대 높게 잘난 척을 해대지. 마치 너희가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행동한다고! 그래, 너희가 나한테 뭘 바치긴 했지. 그게 다 쓰다 버린 거, 망가진 거,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게 문제지만... 내가 그런 걸 받을 것 같아? 잘 듣거라, 나 하나님의 말이다.

¹⁴ 나한테 뭐 대단한 거라도 바칠 듯, 있는 대로 큰소리는 다 쳐놓고, 막판에 엉터리 싸구려로 바꿔치기 하는 자,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게다! 나는 위대한 왕, 천군천사의 하나님이야. 온 세상이 공경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내가 이따위 가짜 예배를 받아 줄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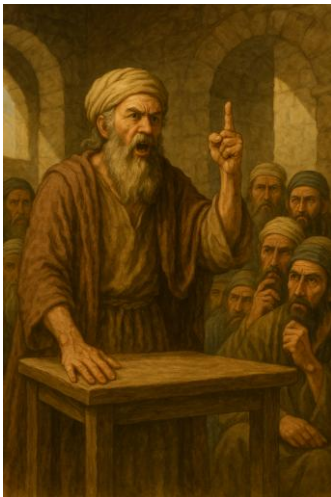
2 장

하나님의 거룩함에 먹칠을 하다니!

1-3 [하나님] 제사장들아, 이젠 너희한테 하는 경고니 잘 듣거라. 너희가 계속 이렇게 뺏대면서 내 말을 안 듣고,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을 예배로 공경하지 않는다면, 너희한테 저주가 임할 게다. 너희의 모든 복을 저주로 바꿔 주마. 사실, 저주는 이미 시작됐어. 왜일까? 너희가 날 공경하는데엔 전혀 진심이 없으니까! 게다가 이 저주는 너희 자녀들한테까지 미칠 거야. 절기 때 나온 쓰레기, 그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너희 얼굴에 치말라 주마. 이게 바로 너희 운명이야!

4-6 이쯤 되면 너희가 정신 좀 차리려나? 그제야 비로소 너희가 깨달으려나? ... 내가 왜 이러는지?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이 레위 제사장들이랑 맺은 언약을 다시 살리려고 이러는 걸 좀 알게 되려나? 내가 레위랑 언약을 맺었던 건, 그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함이었어. 나는 그와의 언약을 지켰고, 그는 날 공경했지. 그는 내 앞에서 경외심으로 서 있었고, 진리를 가르쳤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평화와 정직함으로 나와 함께 걸었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옳은 길로 인도했어.

7-9 진리를 가르치는 게 본래 제사장들의 임무 아니야? 제사장들이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본래 제사장이라 함은...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메신저잖아? 그런데 너희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렸지. 너희의 가르침으로 오히려 많은 이들의 삶이 꼬여 버렸다고! 나와 제사장 레위와의 언약을, 너희가 다 망쳐버렸단 말야!

그러니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내가 너희 본색을 드러낼 거야. 그럼 모두가 너희한테 혐오감을 느끼고 질색팔색 하겠지. 왜냐고? 너희가 내 명령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내 계시를 왜곡해서 편파적으로 가르쳤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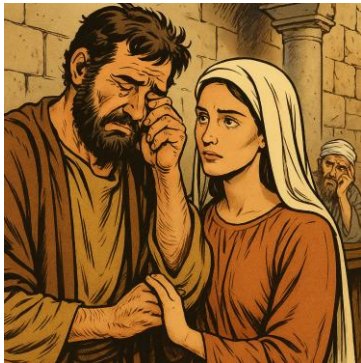
10 [말라기] 우리 모두 한 아버지한테서 나오지 않았소? 우리 모두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소? 그런데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요? 우리는 조상들의 언약-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는-을

어디다 팔아먹은 거요?

11-12 유다는 하나님을 속였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 이방 여인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여인들한테 빠져 서슴없이 달려가다니...!

하나님의 거룩함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런 짓을 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거요!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시오! 가문에서 추방하란 말이오! 그들이 천군천사의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제물을 바친다 해도, 그들은 더 이상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소!

13-15 유다의 두 번째 죄는 이거요. 그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했다며, 예배장소에 와서 계속 징징대면서 양탈을 부렸지.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오? 그건 간단하오. 그대들이 젊은 신부에게 결혼서약을 할 때, 하나님이 증인으로 거기 계셨었거든. 그런데 그



서약을 깨뜨리다니! 그대들이 결혼식 때 배우자-아내-한테 신뢰를 약속했잖소? 그런데 그 신뢰를 저버리다니! 결혼제도를 만든 건 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오. 그래서 결혼생활의 아주 작은 디테일에도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다오. 그렇다면 주님이 결혼에서 원하시는 게 뭐일 거 같소? 바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신다오. 그러니 그대들 안에 있는 결혼의 정신을 지키시오. 배우자 몰래 불륜을 저지르지 말란 말이오.

16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오.

[하나님] 나는 이혼이 정말 싫다. 결혼으로 이룬 ‘한 몸’을 찢는 폭력! 그게 너무 싫다고!

[말라기] 그러니 조심하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바람 피우지 말란 말이오.

17 또한 그대들은 이런 말로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었소. 그러고도 이렇게 묻지.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다니…? 이건 또 뭘 소리야? 하나님은 죄인이든, 죄든… 뭐든 다 사랑하시잖아? 뭐? 심판?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에이, 말도 안 돼!

[말라기]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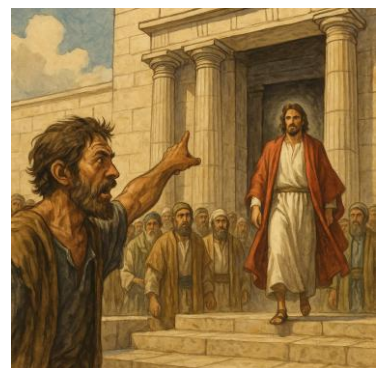
3 장

그대들이 찾던 주님

1 [하나님] 잘 듣거라! 내가 내 메신저를 먼저 보낼 거란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거란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너희가 그토록 찾던 지도자-그래,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언약의 메신저-가 성전에 등장할 거란다. 잘 보거라, 그가 오고 있구나!

[말라기]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라오.

2-4 [하나님] 하지만 그날 그의 앞에 버틸 사람이 있을까? 그의 모습을 보고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는 은을 녹이는 ‘용광로 불꽃’ 같고, 때를 박박 지우는 ‘강력 세제’ 같단다. 그는 다름아닌 은을 정련하는 자,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빠는 자란다. 그가 레위 제사장들을 깨끗이 씻기고, 금과 은처럼 정련해 하나님께 합당한, 의의 제사를 드릴 자로 만들 거란다. 그제야, 그제야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이 예전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존재가 될 거란다. 먼 옛날처럼 말야.

* * *

⁵ [하나님] 그래,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간다! 마법사들, 간음하는 자들, 사기꾼들, 직원을 착취하는 악덕 사장들, 과부와 고아를 울리는 자들, 노숙인들을 냉대하는 자들, 곧 나를 공경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거란다.

[말라기]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 * *

⁶⁻⁷ [말라기]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 나는 존재한다. 나는 변함이 없다. 내가 변함이 없기에, 너희 야곱의 후손들도 멸망당하지 않은 거란다. 솔직히 너희, 내 계명을 주구장창 무시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니? 내가 이른 말을 하나도 실행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내게 돌아오거라. 그럼 나도 너희한테 돌아가마.”

너희가 이렇게 묻는구나.

(백성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죠?

⁸⁻¹¹ [하나님] “우선, 정직해지는 걸로 시작하거라. 정직한 자가 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니? 하지만 너희는 매일 내 걸 훔치지.”

이 말에 너희가 또 이렇게 묻는구나.

(백성들) 우리가 언제 주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십일조랑 제물,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지금 너희는 저주 아래 있어. 실은 너희의 모든 게 다 저주 아래 있지. 이게 다 너희가 내 걸 도둑질했기 때문이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성전 창고로 가져오거라. 그렇게 내 성전을 가득 채우거라. 그래야 내 성전이 잘 굴러가지 않겠니? 날 한번 테스트해 보거라. 내가 하늘을 열어, 너희가 상상치도 못할 복을 쏟아 부어 주는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라고! 내가 너희를 약탈자로부터 보호해 주마. 탈취자로부터 너희 밀밭과 채소밭을 보호해 주마.

[말라기]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¹² [하나님] 그럼 너희는 장차 ‘행복한 민족 1위’로 뽑힐 게다. ‘은혜의 나라’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될 게다.

[말라기]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

¹³ [말라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희는 나한테 참 거칠고 무례한 말들을 했어.”

그런데도 이렇게 되물었지.

(백성들)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¹⁴⁻¹⁵ [하나님] 언제냐고? 너희가 이런 말을 했을 때지.

(백성들) 하나님을 섬겨서 좋을 게 뭐람? 우리가 얻을 게 뭐냐고? 엄숙하게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천군천사의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려 애쓰들 뭐가 달라졌단 말야. 오히려 제멋대로 인생을 사는 자, 온갖 법을 어기는 자가 출세하고 잘 살더구만. 하나님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면서 볼 장 다 봐도... 그들은 여전히 멀쩡하잖아?

¹⁶ [말라기] 그 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화에 귀 기울였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 한 권이 펼쳐지더니 그 모임에 대한 기록을 하기 시작했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는 그들 이름이 그 책에 빠짐없이 다 적힌 거요.

¹⁷⁻¹⁸ 그때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소.

[하나님] 그들은 내 것이란다. 온전한 내 소유지. 훗날 내가 행동에 돌입할 때, 그들은 특별대우를 받을 거란다. 마치 부모가 효도하는 자식을 귀하게 여기듯, 나 역시 그들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 거란다. 이로써 너희는 다시 확인하게 될 게다. 옳은 일을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 사이에, 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4 장

의의 태양이 밝아올 것이다

¹⁻³ [하나님] 잘 기억하거라. 그날이 오고 있다! 온 숲을 집어삼키는 산불처럼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날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아궁이의 장작처럼 타서 바스러질 게다. 남는 건 그을린 재와 폐허뿐... 그날은 암흑의 날이 될 게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해가 떠오를 거란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 그 날개에서 치유의 광선이 펼쳐질 거란다. 너희가 원기왕성하게 될 거란다. 폴짝폴짝 뛰는 망아지처럼 생기발랄하게 될 거란다. 너희가 악인들을 짓밟을 거란다. 그날, 악인들이 너희 발밑에서 바스러진 재로 사라질 거란다.

[말라기]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⁴ [하나님]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 준 계시의 말씀을 잊지 말거라.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줬던 계시, 올바른 삶의 원칙이 담긴 그 모든 규례를 마음에 새겨 지키거라.

5-6 그리고 앞을 내다보거라.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미리 길을 닦게 할 거란다. 나 하나님의 중대한 날, 그 결정적인 심판의 날을 위해! 부모들은 자녀를 잘 돌보도록,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그가 설득할 거란다. 그럼에도 그들이 거부하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저주할 수밖에...

